

Contents

- | | |
|---|--|
| <p>01 권두언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p> <p>03 이달의 이슈
①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전략
②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③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p> <p>09 자치단체 탐방 - 충남 서산시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p> | <p>11 자치단체 우수사례 - 전라남도 순천시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비즈니스</p> <p>13 도시통계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추진실적과 통계</p> <p>16 지방자치단체 동향(11월)</p> <p>17 연구원동정-12월 연구원 소식</p> <p>19 알림마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기관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p> |
|---|--|

KRILA _ 2011

2011년 12월호

제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29호
발행인 한표환
편집인 뉴스레터 위원회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락처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디자인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e-mail :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에서 Newsletter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두언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읍면동 등의 지역사회(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량과 지역 내의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즈니스 원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커뮤니티재생을 위하여 1975 - 1976년 ‘단기고용창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발한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회자금 등이 공동으로 출자·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을 고용한다. 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재투자하며, 사업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대도시 중심부에 생겨나는 일본형 도시내부(inner-city) 문제가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출범시킨 영국은 현재 시장규모가 60조원대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 영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가 2008년 2400억 엔(약 3조7000억원), 2011년 2조20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것이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읍면동 청사 내부에서 취미나 레크레이션 등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가 서서히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공공성을 가지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다른 마을사업의 재원조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을사업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향후 주민자치사업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목표를 ‘비즈니스’가 아닌 ‘커뮤니티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사적 영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관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시민단체-중간협력지원조직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